

## 【서평】

### 元曉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

김종인\*

元曉(617-686)가 한국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남긴 저술의 질적·양적 수준으로 인하여, 그의 저술 번역 현황은 현 단계 한국 고전 번역의 현황과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효는 한국 철학사에서 가장 많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생존 당시에 이미 신라 사회에서 유명한 학승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사후 몇 세기 내에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에까지 그 학문적 명성을 날렸다. 근대에 와서도 그의 학문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 [한국불교관계논저종합목록](이철교·이동규 편찬, 고려대장경연구소, 2002)에 따르면 1892년부터 2002년 4월까지 110년간 1301편의 원효관련 논저가 국내 및 외국에서 출판, 발표되었다.<sup>1)</sup>

원효는 총 100여 부 24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글이 전하고 있다.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내 韓國佛敎全書編纂委員會에서 1979년 발간한 『韓國佛敎全書』에 실린 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또한 원효의 저술이다. 여기에 실린 원효의 저술과 이 저술들의 번역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1) 저술, 번역서, 논평 등 모든 형태의 글이 포함된 수치이다.

원효의 현존 저술

- 『大乘六情懺悔』
- 『金剛三昧經論』
- 『大乘起信論別記』
- 『大乘起信論海東疏』
- 『大慧度經宗要』
- 『無量壽經宗要』
- 『彌勒上生經宗要』
- 『彌陀證性偈』
- 『發心修行章』
- 『梵網經菩薩戒本私記』(上券)
- 『法華宗要』
- 『菩薩戒本持犯要記』
- 『佛說阿彌陀經疏』
- 『十門和諍論』(斷片)
- 『涅槃宗要』
- 『瓔珞本業經疏』(일부)
- 『遊心安樂道』<sup>2)</sup>
- 『二障義』
- 『中邊分別論疏』(券一)
- 『判比量論』
- 『解深密經疏』(일부)
- 『華嚴經疏』(일부)

---

2) 이 책은 원효의 저술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지만, 『韓國佛教全書』에는 실려 있다.

원효저술 번역현황

원서명	번역서명	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편찬자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	成樂熏 譯	同和出版公社	1972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	李箕永 譯	大洋書籍	1972	
金剛三昧經論	한글대장경 155(한국고승 5)	조계종역격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5	
金剛三昧經論	韓國의 佛敎思想	李箕永 編譯	三省出版社	1976	
金剛三昧經論	世界의 大思想 35: 中論頌 外	李箕永 譯	徽文出版社	1979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新講	金栽根 編譯	寶蓮閣	1980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韓國名著選集 1)	李箕永 譯	新華社	1983	
金剛三昧經論	한글대장경 金剛三昧經論	譯經委員會 譯	東國譯經院	1985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원효전집 1)	金達鎭 譯	열음사	1986	
金剛三昧經論	(國譯)元曉聖師全書, 卷2	한길로 譯	寶蓮閣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韓國思想大全集 1)	이기영 譯	良友堂	1994	
金剛三昧經論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동국역경원	1995	
金剛三昧經論	金剛三昧經論	李箕永 譯解	韓國佛敎研究院	1996	
金剛三昧經論	(원효의)금강삼매경론	은정희, 송진현 譯註	일지사	2000	
金剛三昧經論	금강삼매경론(상)	조용길 외 譯	동국대출판부	2002	
金剛三昧經論	금강삼매경론(하)	조용길 외 譯	동국대출판부	2002	
大乘起信疏	韓國의 思想大全集 1 元曉 外	成樂熏 譯	同和出版公社	1972	
大乘起信疏	한글대장경(한국고승 6)	조계종역격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7	
大乘起信疏	元曉	成樂熏 譯	同和出版社	1985	
大乘起信疏	大乘起信論元曉疏	姜晶中 譯	谷水人山房	1996	
大乘起信疏·別記	韓國의 佛敎思想	李箕永 編譯	三省出版社	1976	
大乘起信疏·別記	(懸吐譯解)起信論=大乘起信疏記會本本, 1	金吞虛 譯解	華嚴學研究所	1981	
大乘起信疏·別記	(懸吐譯解)起信論=大乘起信疏記會本本, 2	金吞虛 譯解	華嚴學研究所	1981	

大乘起信疏·別記	(懸吐譯解)起信論=大乘起信疏記會本本, 3	金吞虛 譯解	華嚴學研究所	1981	
大乘起信疏·別記	(懸吐譯解)起信論=大乘起信疏記會本本	金吞虛 譯解	教林	1986	
大乘起信疏·別記	한국의불교사상	이기영 譯	삼성출판사	1990	
大乘起信疏·別記	원효의 대승기신소·별기	은정희 譯註	一志社	1991	
大乘起信疏·別記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김달진 譯	동국역경원	1995	
大乘起信疏別并記	(國譯)元曉聖師全書, 卷5	張空波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8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大乘六情懺悔	한글대장경 155(한국고승 5)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5	
大乘六情懺悔	(國譯)元曉聖師全書, 卷6	金煥泰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9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大慧度經宗要	한글대장경 156(한국고승 6)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7	
大慧度經宗要	(國譯)元曉聖師全書, 卷2	李鍾益 譯	寶蓮閣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大慧度經宗要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김달진 譯	동국역경원	1995	
彌勒上生經宗要	한글대장경 156(한국고승 6)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7	
彌勒上生經宗要	國譯一切經(經疏部12)	石川良昱 譯	大東出版社	1981	
彌勒上生經宗要	(國譯)元曉聖師全書, 卷2	金尙祚 譯	寶蓮閣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彌勒上生經宗要	미륵삼부경	沈載烈 譯		1974	
彌勒上生經宗要	미륵삼부경	沮渠京聲 唐譯	寶蓮閣	1985	
彌勒上生經宗要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김달진 譯	東國譯經院	1995	
發心修行章	한글대장경 155(한국고승 5)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5	
發心修行章	發心修行章	연등국제불교회관 譯	연등국제불교회관	199	
發心修行章	發心修行章[診解]	명지대한국어국문학과		1978. 2	
發心修行章	(國譯)元曉聖師全書, 卷6	張空波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9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發心修行章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김달진 譯	동국역경원	1995	
梵網經菩薩戒本	(國譯)元曉聖師全書,	釋慧隱 譯	大韓佛教元曉	1988	元曉全書國

私記上券	卷4		宗		譯刊行會 編
法華經宗要	한글대장경 156(한국고승 6)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7	
法華經宗要	(國譯)元曉聖師全書, 卷1	李鍾益 譯	寶寶蓮蓮閣閣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法華經宗要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동국역경원	1995	
法華經宗要	法華宗要의 譯注	徐輔鐵 譯注	朝鮮獎學會	1982.12	
菩薩戒本持犯要記	菩薩戒本持犯要記	李英茂 譯	建國大學校史學會	1973	
菩薩戒本持犯要記	(國譯)元曉聖師全書, 卷4	張空波	大韓佛教元曉宗	1988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佛說阿彌陀經疏	(國譯)元曉聖師全書, 卷4	趙明基	大韓佛教元曉宗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十門和諍論	(國譯)元曉聖師全書, 卷5	張無垢	大韓佛教元曉宗	1988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無量壽經宗要	(國譯)元曉聖師全書, 卷1	趙明基	寶蓮閣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無量壽經宗要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동국역경원	1995	
涅槃經宗要	한글대장경 156(한국고승 6)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7	
涅槃經宗要	열반종요(현대불교신서 44)	황산덕 譯	동국역경원	1982	
涅槃經宗要	(國譯)元曉聖師全書, 卷1	李英茂 譯	寶蓮閣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涅槃經宗要	한글대장경 大乘起信論疏別記 外		동국역경원	1995	
涅槃經宗要	열반종요강의	이기영 譯	한국불교연구원	2005	
瓔珞本業經疏	(國譯)元曉聖師全書, 卷3	金尙祚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遊心安樂道	遊心安樂道	金萬基 譯	三榮出版社	1972	
遊心安樂道	한글대장경 155(한국고승 5)	조계종역경위원회 譯	동국역경원	1975	
遊心安樂道	遊心安樂道	金雲學 譯	三星美術文化財團	1979	
遊心安樂道	(國譯)元曉聖師全書, 卷6	釋慧隱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9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二障義	(國譯)元曉聖師全書, 卷6	吳亨根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9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二障義	이장의	은정희 譯註	소명(박성모)	2004년 12월	

中邊分別論疏	(國譯)元曉聖師全書, 卷4	李鍾益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8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中邊分別論疏	중변분별론소	박인성 譯	주민출판사	2005년 03월	
晋譯華嚴經疏	(國譯)元曉聖師全書, 卷3	金知見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判比量論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김성철 譯	지식산업사	2003	
判比量論	(國譯)元曉聖師全書, 卷6	張無垢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9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解深密經疏	(國譯)元曉聖師全書, 卷3	李英茂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華嚴經疏卷三	(國譯)元曉聖師全書, 卷3	金知見 譯	大韓佛教元曉宗	1987	元曉全書國譯刊行會 編

이상의 번역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존 원효 저술이 모두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효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철학사상의 위치, 1964년에 설립된 동국역경원의 활동, 고전국역사업에 관심을 가진 정부의 65년 국고지원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부터 원효의 저술이 일반 출판사에서의 상업적 번역 출판과 조계종단에서의 비상업적 번역 출판 양면에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반들이 쌓이자, 원효를 종조로 삼고 있는 元曉宗에서 “元曉全書國譯刊行會”를 구성하여 1987-89년간에 원효의 모든 현존 저술을 모아 번역하여 (國譯)元曉聖師全書 라는 이름의 전집으로 출판하였다. 이 번역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것이지만 당시의 불교 한문의 실력가들이 모두 모여서 원효의 저술 전체를 번역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원효의 저술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저술인 『大乘起信論疏·別記』와 『金剛三昧經論』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번역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효 저술의 번역은 상당한 축적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약 사반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통해서 상당한 양적 축적을 이룬 그간의 원효 저술의 번역은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원효의 저술에 대한 최초의 한글 번역은 1972년에 이루어진 한학자인 성락훈의 『金剛三昧經論』과 『大乘起信論疏』의 번역(同和出版社 출판)과 불교학자인 이기영의 『金剛三昧經論』(大洋書籍 출판)이다. 두 사람

의 번역은 동일한 연도에 출판되었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람의 번역서를 출판한 출판사가 모두 학술서적 전문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교양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라는 점이다. 또 두 출판사 모두 이 두 사람의 번역서를 단일 도서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전집으로 출판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성락훈의 『金剛三昧經論』과 『大乘起信論疏』은 韓國의 思想大全集으로 출판되었고, 이기영의 『金剛三昧經論』은 韓國名著大全集으로 출판되었다.

197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 세계 문학대전집, 한국문학대전집, 세계 사상대전집, 한국사상대전집, 백과사전 등 거실 장식용의 교양서적 전집 출판이 유행하던 때인데, 원효의 대표저작인 『金剛三昧經論』과 『大乘起信論疏』 역시 이러한 유행을 타고 출판되었다. 당시 책들은 실제로 읽혀지기 위해서 출판되기보다는 주로 장식용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번역서인 사상서들이 너무도 난해하여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었다는 점인데, 『金剛三昧經論』과 『大乘起信論疏』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각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사상서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들이 아니지만, 70년대에 전집으로 출판된 사상서들은 그보다는 부적절한 번역으로 인하여 이해가 불가능한 책이 되었다. 번역자가 사상서 자체의 사고체계와 독자의 사고체계 양자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어와 서술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사상서의 번역은 불가능한데, 70년대 번역사상서들은 그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출판사와 번역가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는 동양 및 한국 고전 사상서의 번역서들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출판되었다. 동양 및 한국 고전의 번역은 동일한 문화 전통 속에서의 번역이기 때문에 사고의 추상성이 덜한 유학 계통의 번역서들은 읽기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매우 추상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 불교 계통의 번역서는 사정이 달랐다.

이기영이 72년에 번역한 『金剛三昧經論』은 이 책에 대한 10쪽 분량의 “해설”과 함께 시작되는데, 본문에 대한 완역과 함께 원문, 그

리고 번역문에 얼마간의 번역자의 주석이 붙어 있다. 그런데 이 번역서의 “해설”문은 이 번역서가 어떤 독자를 위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해설의 어떤 부분은 교양독서층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불교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부처님 제자로서 가장 탁월한 제자로소 흔히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들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원효만이 그러한 영광을 차지했고.”<sup>3)</sup> 같은 부분은 일반 교양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미흡한 것은 금강삼매경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sup>4)</sup>로 시작되는 금강삼매경에 대한 설명은 불교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역자가 이렇게 이 번역서의 독자층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책을 읽은 이를 위한 권고”에서의 다음과 같은 역자 스스로 언급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한문원전 및 한문원어를 표준으로 읽어 가야 하며 한글 번역만을 쫓아가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한글로 옮겨진 번역어는 도저히 한자(漢字)가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글자의 뜻이라기보다도 역사의 뜻이라고 보아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밀히 원전을 연구하는 자세로 읽어주기 바란다.<sup>5)</sup>

역자의 말대로 이 책은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한글세대의 일반 교양지식층 독자를 위한 번역서가 아니다. 이 책은 원전 『金剛三昧經論』을 읽는 참고도서이다. 말하자면 기존에 한문 원전에 토를 달아 원전 해석에 도움을 주는 데서 조금 더 진전한 참고서이다. 결국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책이 출판될 당시인 1970년대에는 더 이상 교양지식층에 속하는

3) 『金剛三昧經論』, 李箕永 譯, 大洋書籍, 1972, p. 13.

4) 『金剛三昧經論』, 李箕永 譯, 大洋書籍, 1972, p. 15.

5) 『金剛三昧經論』, 李箕永 譯, 大洋書籍, 1972, pp. 21-22.



것이 아니라 전문학자에 속한다. 그리고 그 전문 학자는 불교학자이다. 번역과 각주를 통한 해석의 정도가 한학 실력만으로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마치 자신의 번역서를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 교양층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기영이 “역사의 탓”이란 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번역을 통하여 원효의 저술들을 한글세대의 교양 지식층 일반이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번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문에 능통한 조선시대 유학자라 할지라도 불교철학적 소양이 없다면 원효의 저술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원효의 모든 저술들은 애초부터 다년간의 공부를 통하여 상당한 불교철학적 지식을 축적한 불교학자들을 위해서 쓰였다. 그의 저술들은 수학으로 치면 초등학교 산수를 마친 것은 물론이고, 방정식이 포함된 중학교의 수학 과정을 마치고, 미·적분이 포함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난 수학자들이 공부하는 수학기론에 해당한다. 다년간에 걸친 체계적인 불교교리에 대한 공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원효의 저술은 애초부터 불교전문학자들을 위해서 번역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 외에도 성락훈(『金剛三昧經論』, 同和出版公社, 1972; 『大乘起信論疏』, 同和出版公社, 1972), 김달진(『金剛三昧經論』, 열음사, 1986) 등이 대중적 독자층을 겨냥한 원효 저술의 번역 출판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어정쩡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어정쩡한 번역, 전문학술용의 번역도 아니고 교양 독서용의 번역도 아닌 어정쩡한 번역,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책을 읽고 원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을 하였다. 특히 이기영은 72년에 출판한 동일한 번역 원고를 1996년까지 출판사를 바꾸어 가며 계속하였다. 그는 또 『大乘起信疏·別記』를 번역하여 1976년에 三省出版社에서 출판하였는데, 이 역시 동일한 형태의 번역이었다. 전문학

자를 위한 번역이라고 보기에 번역의 엄밀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상세한 각주를 통한 관련 지식 정보의 소개가 부족하였다. 교양독서인을 위한 번역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양독서인을 위한 번역서인 것처럼 출판된 것은 상업적 이유에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양독서인 혹은 지식인 일반을 위한 번역서로서의 가치라는 잣대로 원효 저술의 번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전문학자들을 위한 번역서로서의 원효 저술의 번역을 평가하는 일만 남았다.

원효의 저술들의 번역은 『金剛三昧經論』과 『大乘起信論疏·別記』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학술용<sup>6)</sup>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들의 번역 수준은 학술적 용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대부분 이기영이 72년에 출판한 『金剛三昧經論』 및 76년에 출판한 『大乘起信論疏·別記』의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전문학술용 번역으로서의 이들 번역의 구체적 한계는 1991년 一志社에서 출판한 殷貞姬의 『大乘起信疏·別記』 번역과 2000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한 『金剛三昧經論』 번역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지면 관계상 1992년에 한국출판문화상수상을 수상한 역작으로 평가되는 은정희 번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大乘起信論疏·別記』 번역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 보겠다.

은정희의 번역은 첫째, 일반독자를 겨냥하지 않은 순수 전문학술용 번역이란 점이다. 둘째, 전문학술용 번역이기 때문에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원문의 글자 하나하나와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번역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셋째, 원문과 번역문과의 직접적인 대조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단 단위로 번역문과 원문을 나란히 실고 있다. 넷째, 원효가 다른 經論에서 인용하여 서술한 경우에는 그 인용문의 원 출전을 직접 찾아서 인용문과 출전에서 실제 원문과의 차이 등도 비교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은정희 이전의 원효 저술 번역에

6) 여기서 전문학술용이라는 말은 학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불교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서는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다섯째, 자신의 번역이 기존의 번역인 이기영, 성락훈, 탄허 등의 번역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각주에 이들의 번역문을 실어서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신의 번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기존의 번역에는 없었던 일이다. 여섯째, 각주를 통한 상세한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각주의 대부분은 사전적 용어풀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이 아쉽지만, 기존의 번역서들이 가지고 있는 각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양의 각주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전문학술용 도서의 필수사항인 색인의 제공이다. 이 역시 기존 번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여덟째, 이러한 이유 등으로 양적인 면에서도 기존 번역 원고를 훨씬 능가한다. 이기영의 번역과 은정희의 번역 모두 같은 판형에 같은 글자 크기로 출판되었는데,<sup>7)</sup> 전자가 총 135쪽인데 비해 후자는 468쪽으로서 약 3배 반에 이른다. 참고로 양자의 번역문 일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문

第一標宗體者 然夫大乘之爲體也 蕭焉空寂 湛爾沖玄 玄之又玄之 豈出萬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 非像表也 五眼不能見其軀 在言裏也 四辯不能談其狀

#### 이기영 역

무릇 대승(大乘)으로 체를 삼고 있으니 깊고 공적(空寂)하며, 맑고 그윽하다. 현묘(玄妙)하고 또 현묘하여, 어찌 만상을 표출시킬 수 있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지만 백가(百家)의 말 속에 들어 있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안(五眼)으로도 그 몸을 능히 볼 수 없으며, 또 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변(四邊)으로도 능히 그 형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sup>8)</sup>

7) 행간의 경우 은정희의 번역서가 조금 커 보인다.

8) 이기영 역, 『한국의불교사상』, 삼성출판사, 1990. p. 33.

## 은정희 역

처음 종체(宗體)를 나타낸 것은, 저 대승(大乘)의 체(體)됨이 고요하여 적막하며, 깊어서 그윽하다. (이 대승의 체가) 깊고 또 깊으나 어찌 만상(萬象)의 밖을 벗어나겠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나 오히려 백가(百家)의 말 속에 있다. 만상의 밖을 벗어나지 않았으나 오안(五眼)으로 그 몸을 볼 수 없으며, 백가의 말 속에 있으나 사변(四邊)으로 그 모양을 말 할 수 없다.<sup>9)</sup>

원문과 비교해 보면 은정희의 번역이 번역문의 유려함이나 가독성보다 의미의 정확한 번역을 추구하는 전문학술용의 번역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 위 인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기영의 번역은 위 번역문에 1개의 주석을 달고 있으나 은정희의 번역은 5개의 주석을 달고 있다.

은정희는 『大乘起信論疏·別記』 외에도 『金剛三昧經論』과 『二障義』를 같은 형태와 수준으로 『大乘起信論疏·別記』를 번역하여 원효 저술 번역을 전체적으로 한 단계 끌어 올렸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정희 이후에도 원효 저술에 대한 번역은 계속되었으나, 은정희 번역 이상의 수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기영, 김달진 등의 번역은 과거의 번역과 거의 차이 없이 일부 번역 용어를 조금 더 일반지식층에게 익숙한 용어로 수정하는 정도이다. 원효 저술을 번역하는 사람들 일부는 여전히 최근까지도 전문학술서로서의 번역의 정확성보다는 원효 저술을 불교학자가 아니라 일반지식층에게까지 읽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조용길과 정통규의 2002년에 동국대출판부에서 출판한 『金剛三昧經論』 번역이다. 이 번역은 일부 전문 용어를 과감하게 일반 용어로 번역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역시 은정희의 번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소·별기』, 一志社, 1991, p. 18-19.

원문

夫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

은정희 · 송진현

저 일심의 근원은 유(有)와 무(無)를 떠나서 홀로 맑으며, 삼공(三空)의 바다는 진(眞)과 속(俗)을 융합하여 깊고 고요하다.<sup>10)</sup>

조용길 · 정통규 역

무릇 좋다 · 나쁘다, 아름답다 · 추하다, 높다 · 낮다 등의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 곧 영구히 변치 않는 우주의 온갖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음 · 없음에 집착하는 그릇된 생각을 떠나서 오직 맑고 깨끗하다.<sup>11)</sup>

일심, 유무, 삼공, 진속 등은 모두 전문 용어인데 조용길 · 정통규는 이를 모두 일반 용어로 풀어쓰고 있다. 여기 인용된 문장만 보면 조용길 · 정통규의 이러한 번역은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용길 · 정통규의 다음 번역문을 보면 풀어쓰기가 불교용어에 대한 기존의 사전적 정의들로 대체되어 있으며 도리어 원문의 정연한 논리전개를 혼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고 하는 고정적 실체가 없으므로 ‘나’는 영구한 것이 못된다는 것(我空)과 유형(有形) · 무형(無形)의 모든 존재는 고정적 실체가 없이 빈 것이며 없는 것 (法空), 그리고 아공(我空) · 법공(法空)이라는 것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구공(俱工)의 세 가지 실체 없음(三空)은 바다처럼 넓다.<sup>12)</sup>

동아시아 및 한국 고전 사상서의 번역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

10) 『(원효의)금강삼매경론』, 은정희, 송진현 譯註, 일지사, p. 19.

11) 『금강삼매경론(상)』, 조용길 외 譯, 동국대출판부, 2002, p. 2.

12) 『금강삼매경론(상)』, 조용길 외 譯, 동국대출판부, 2002, p. 2.

는 서양 고전 사상서의 번역보다도 힘든 작업이다. 한글로 번역을 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제도교육이 교육제도 뿐 아니라 교육 내용까지 서양사상의 전통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이수하여도 번역된 동아시아 및 한국 고전 사상서를 읽을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원효의 저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심지어는 인문학자가 되어도 그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불교의 사상적 전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는 원효의 저술을 이해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고전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전사상서에 대한 알기 쉬운 번역, 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교양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번역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기존 번역서들은 번역서도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요구와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근본원인이 결코 번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동아시아 고전사상서의 한글 번역이 안 되는 근본원인은 번역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지식체계에 있다.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은 동아시아 고전사상서를 읽을 수 있는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것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전통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는 교육체제와 문화적 상황에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동아시아 전통사상에 대한 기초 지식을 획득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급한 동아시아 고전사상서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고서 모든 동아시아 및 한국 고전 사상서의 번역을 시도할 수는 없다. 원효의 저술과 같은 부류의 동아시아 및 한국의 고전들은 정미하고 완성도 높은 학술용 서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